

목포권

선금금 29억 받은 건설사 돈 다른데 써버려 목포애향중 내년 개교 '비상'

시민들, 공사 포기 강제집행 요구

한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교사 신축 공사가 중단되면서 개교일정이 늦어져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시공사에 대해 공사포기 강제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관련 교육청에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목포교육청(교육장 최경수)에 따르면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해 지난 3월 옥암동에 목포애향중학교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이 학교는 1만1천25㎡의 부지에 58억원을 투입해 내년 1월 준공, 3월에 개교할 예정이었다.

예정대로 개교할 경우 내년에 8학년 280명, 2011년 8학년 240명 등 2012년까지 24학급으로 정원을 늘려

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공사인 S건설은 지난 3월 선금금 50%인 29억4천250만5천500원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11월 현재 예상공정 6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39%에 그치고 있다. 이 시공사는 선금금 29억여원 중 일부만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공사인 S건설이 다른 공사와 관련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놓은 상태여서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없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이에 목포교육청은 S건설의 모기업 J개발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방문해 공사진행을 촉구하고, 공사진행

이 어려운 경우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진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목포교육청은 S건설에 자금확보 대안, 공사만회 공정보, 추후 공정 등을 질의했지만 S건설은 회신조차 해주지 않아 무책임한 처사가 입찰에 오르고 있다.

목포교육청 관계자는 "계약법상 직권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다른 방향의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 건설업 관계자들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한 S건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나 업체들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구기자 수확... '바쁘다 바빠' 진도군 희망근로 농촌일손돕기 기동단이 최근 진도를 들녘에서 지역특산물인 구기자를 수확하고 있다. 진도읍은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과 질병·중증질환 149농가를 접수받아 현재까지 86농가 406명을 지원했다. <진도군 제공>

남도국악원 금요상설공연 내년 상반기 출연자 공모

국립 남도국악원(진도군 임회면)은 2010년도 상반기 금요상설 공연에 출연할 개인 및 단체를 공모한다.

남도국악원은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첫째와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우리 춤 우리 소리' 금요상설 공연 무대에 외부 초청 출연자를 무대에 올리고 있다.

남도국악원은 외부 초청 공연에 출연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전국에서 공개 모집해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선정한다. 총 11개 출연자(단체)를 모집하며, 지역문화 혹은 한국음악 문화에 기반을 둔 기악·성악·춤목이며 전통 또는 창작 구분없다. 오는 27일까지 남도국악원 홈페이지(www.namdo.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신안 하의~신의 연도교 전남도, 내년 3월 착공

신안 섬지역 주민의 숙원인 하의도~신의도 해상교량 건설공사가 내년 3월 시작된다.

전남도는 595억원을 들여 해상교량 550m를 포함해 총 길이 1.31km로 짓는 연도교 공사를 내년 3월 시작하기 위해 최근 조달청에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 Key) 방식으로 발주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의도와 신의도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배치된 신안의 섬 가운데 최남단 중심부에 있어 연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국도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착공이 미뤄져왔다.

이 공사는 설계·시공 병행공사계약(Fast Track) 방식을 도입, 기본설계 평가 후 실시설계에 앞서 작업장, 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해 착공 준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최권일기자 cki@

목포신항 수출차 아적장 1만3천㎡ 추가 조성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은 목포신항에 수출자동차 아적장 1만3천㎡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수출 자동차가 처리되는 신항의 3만㎡ 재정부두는 일반부두보다 아적장이 매우 좁아 안정적인 물량 처리를 위해 목포 허사도 일원에 추가로 아적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개발 예정지인 허사도에 아적장을 조성해 수출 자동차를 처리하면 재정부두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신항 조기 개발에 따른 부수 효과와 함께 이동거리가 짧아 물류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어업 민원 한번 방문으로 OK"

목포시 절차 개선 '3일→30분' 간편 처리

목포시가 어업(어선)관련 민원 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목포시는 "민원인 입장에서 짧은 3시간에서 길게는 3일이 소요되던 어업(어선) 관련 민원 처리 시간이 30분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신청서가 민원봉사실에 접수되면 해양수산과에서 인수받아 새울행정시스템에서 전자작업 후 에이큐브 시스템에서 결재를 받고 증서를 교부했다. 시

는 이러한 체계를 변경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 가부를 수산행정시스템을 통해 증서출력 후 바로 민원인에게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했다.

또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는 공문은 일괄결재 방식으로 개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1회 방문으로 처리가 안 돼 다시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을 대폭 개선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염전 임대료 내려 천일염 품질 높이자"

신안군, 염전 소유주에 15% 하향 조정 제의

신안군이 지역특산물인 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신안군은 우선 천일염 생산개시일과 종료일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매년 고품질의 천일염을 생산할 수 있도록 3월 28일 시작해 10월 15일에 생산을 끝마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천일염을 생산하는 818호 중 300여 호가 염전을 임대한 생산자로 천일염 생산 개시일과 생산 종료일을 지킬 경우 생산량이 17% 정도 감소가 예상돼 이에 따른 소득도 상

당부분 감소되므로 일부 생산자가 지정일을 지키지 않고 저품질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어 신안 천일염을 명품화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염전 소유주와 임대자가 함께 어려움을 분담해 상생할 수 있도록 염전 임대료 등을 15% 정도 하향 조정해 줄 것을 바라는 협조청서를 염전 소유주들에게 보냈다.

군은 임대 천일염생산자가 염전소유주와 임대료 하향 조정 등의 계약을 원활히 이뤄 품질이 우수한 천일

염을 적정량 생산해 타제품과 차별화시켜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 양축 모두가 높은 소득을 보장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안군은 천일염을 전담하는 천일염산업과 신설과 조례 제정을 비롯해 천일염산업 특구 지정,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슬로시티 인증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세계적인 천일염산업 기반을 구축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5년 후에는 신안 천일염 산업을 1조억원 이상의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법원 경매부동산의 딱지 광고

경매대상 부동산	경매일시	경매장소
<p>1. 경매대상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45 (신영빌딩 10층)</p> <p>2. 경매대상 부동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23 (현대빌딩 5층)</p> <p>3. 경매대상 부동산: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읍 둔포1리 123-4 (아산신도시 1차)</p>	<p>1. 경매일시: 2009년 11월 15일 오후 2시</p> <p>2. 경매일시: 2009년 11월 18일 오후 2시</p> <p>3. 경매일시: 2009년 11월 22일 오후 2시</p>	<p>1. 경매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부동산 경매장</p> <p>2. 경매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부동산 경매장</p> <p>3. 경매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부동산 경매장</p>

경주지방법원 시법보통관 최은민